

이슈페이퍼 2020-06

www.gie.re.kr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김기수
오재길
변영임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연구책임자 :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오재길 상현초등학교 교감
변영임 모현초등학교 교사

CONTENTS

요약 _ 03

I. 학부모의 학교 참여 패턴의 변화 _ 04

II. 교육계가 세대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 _ 08

III. 초등학교 학부모 세대의 변화: 1980년대생 학부모의 등장 _ 11

IV. 1980년대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성 _ 18

V. 시사점 및 제언 _ 30

참고문헌 _ 36

부록 _ 38

요약

-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1980년대생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로 대거 등장함.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 그것은 이전 세대들의 관행과 자주 충돌하게 됨.
- 학교는 대표적인 다세대 조직임. 학생은 대개 6세에서 18세까지, 교원과 학부모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1980년대생은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거래적 계약'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멀티태스킹을 일상화 한 디지털 문화를 누리고 있음. 타인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조직 참여와 협력의 욕구도 높음.
- 이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아나털 세대'이며, 아이돌 팬덤 문화를 만들어 낸 첫 10대들이었음. "한 가지 특기만 가지고 있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된 상황에서 학교에 다녔음.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의 주요 역할을 인성지도와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것으로 봄. 이와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기르고, 숨겨진 재능을 찾아주기를 기대함. 자녀의 교우관계를 중시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걱정함. 학교 출석을 무조건 강제하지 않음.
-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이상적인 역할을 친절한 멘토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꼼꼼한 플래너 또는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음. 사교육도 자녀교육의 계획안에 깊이 들어와 있음.
- 이제는 학부모 관련 연구와 담론을 풍부화 하고, 학부모의 세대별 특성도 파악해야 함. 학부모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은 '학부모 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I.

학부모의 학교 참여 패턴의 변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걱정하는 학부모들

30~40대 연령층 학부모들의 고충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각종 민원으로 표출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 자료를 3차례 발표하였음. 1~2차 분석기간(2020.1.20. ~ 3.19.) 동안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민원 신청이 가장 많은 연령은 40대(1차 36.8%, 2차 50.1%)였음. 3차 분석기간(2020.3.20. ~ 5.5.)에는 30대가 가장 많았음(33.6%).
- 1980년대생은 현재 30~40대로서, 사회적 재난 속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인 통로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함.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교육부에 신청한 민원의 내용은 대개 돌봄, 온라인수업, 등교개학, 온라인 알림장, 유튜브 동영상, 학원비 등임
-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각급학교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임. 이들의 목소리는 대개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시정 요구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짐. 학교에는 아직도 구시대의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새로 학부모로 진입하는 1980년대생의 인식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함. 기성세대의 리더십과 학교문화에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임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내용(요약)]

[1차 분석(2020.1.20. ~ 2.29.)]

-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개학연기 등 휴교 관련 요구 및 문의
-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관련 지침 요구
- 유치원 등 손세정제 비치 지원 등

[2차 분석(2020.2.20. ~ 3.19.)]

- 대학 개강 연기 관련 온라인강의 미실시 불만
- 각급 학교 개강 연기 요청, 교사 긴급돌봄 지원 등 불만
- 학원 휴원에 따른 지원 요청, 유치원 원비 환불 납부 등 확인 등

[3차 분석(2020.3.20. ~ 5.5.)]

- 긴급돌봄 환경 개선, 초·중·고 등교개학 반대 및 찬성
-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등록금 등 반환 검토
- 온라인 수업용 유튜브 영상 점검 요청 등

변화되고 있는 학부모의 지위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학부모의 지위 변동

- 최근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학부모의 정체성과 역할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함.
-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부모의 지위는 보조자의 위치였음. 과거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부모회 등의 이름을 가진 조직들이 맡았던 역할은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조직되었으나, 20여 년이 지나도록 학부모들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학부모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이 성장하고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부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국학부모지원센터도 설립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보는 시각과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음. 전자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시대의 대세임.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을 모니터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함.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와 교육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 이들 학부모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2019년 말까지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9개임. 2013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부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전북,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세종에서 제정하였음.

〈표 1〉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현황

구분	경기	전북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세종
제정년도	2013	2015	2016	2017	2017	2018	2019	2019	2019

-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운영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음. 학부모회 조례에 명시된 ‘학부모회의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는 학부모회에 관한 인식과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부모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김봉제 외, 2019: 119). 조례 제정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II. 교육계가 세대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공존으로

1980년대생 학부모 세대의 비중과 영향력 확대

- 미국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 동안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조직 구성원의 14%에서 32%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의 신세대 비중도 40%~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함인희, 2019: 4). 로자베스 M. 켄터는 19%의 법칙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어떤 소수집단이든 19%를 넘어서면 소수집단의 지위를 벗어나 조직문화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임(함인희, 2019: 4).
-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전례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학부모 세대는 대체로 30대 중후반의 연령임.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결혼했을 2011년 당시,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 31.9세, 여자 29.1세임.¹⁾
- 향후 학부모는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확대되고,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 예상됨. 이에 1980년대생 학부모의 문화와 학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나아가 세대별로 학부모 문화를 탐구하고 그에 맞게 학교 정책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음.

1)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 평균 연령은 2010년 남자 31.8세 여자 28.9세, 2011년 남자 31.9세 여자 29.1세, 2012년 남자 32.1세 여자 29.4세, 2013년 남자 32.2세 여자 29.6세이며 2019년 남자 33.37세, 여자 30.59세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다세대 학교조직

(Multi-generational School Organization)

- 칼 만하임(K. Mannheim)은 세대 개념의 중요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음. 그는 세대를 ‘사회 변화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생물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사회현상’(만하임, 1927, 함인희, 2019: 3 재인용)이라고 정의함. 만하임에 의하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것은 사회변화의 원동력이며, 세대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도 사회변화에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학교는 세대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임. 학교만큼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조직을 찾기 어려움. 교원만 해도 20대에서 60대까지 걸쳐 있음. 배움터지킴이, 숙직기사 등 교육공무직원까지 포함하면 80대까지 퍼져 있음.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고려하면, 학교야말로 대표적인 다세대 조직임.
- 학부모도 예외가 아님.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대체로 20대에서 50대까지 존재함. 손자와 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부모까지 고려하면, 연령의 폭은 더욱 커짐.

세대 갈등(Generational Conflict) 요인 증가

-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유동적임. 함인희는 Harvard Business Review를 인용하여, 조직 내에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지적함(함인희, 2019: 7). 첫째, 조직의 다세대화임. 사회변화의 속도가 느리던 때에는 조직 내에서 세대 분화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별화된 정서를 공유하는 세대가 다층적으로 분화됨. 이것이 조직 내 세대 갈등의 유발 요인이 된다고 봄. 둘째, 세대별 이해관계와 가치의 충돌임. 각 세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상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봄. 셋째, 세대별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임. 각 세대는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은 상대방에 대해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넷째, 미디어의 갈등 조장임. 미디어가 각 세대를 포착하고 보도하는 방식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함. 다섯째, 디지털 기기 활용 스킬의 차이임.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기기를

매우 유연하게 자주 활용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그렇지 못함. 이로 인해 세대 간에 이질적인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세대 공존과 학교 참여를 위한 교육정책 필요

- 세대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 세대가 공존해야 함. 세대 공존은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세대 공존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고, 다른 세대의 정서와 기호, 가치관과 태도, 행동양식 등을 파악하여, 세대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각 세대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공존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한국의 학생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14년(유치원 5세 ~ 고3 18세)에 걸쳐 학교에 다님. 학부모의 연령대는 이보다 훨씬 넓어서, 30대부터 60대까지 펼쳐져 있음. 매년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학생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
-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학교 운영과 교육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는 그에 맞게, 대학이나 직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고등학교 단계에는 또 그에 맞게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교육정책 및 학부모정책이 필요함.

III.

초등학교 학부모 세대의 변화: 1980년대생 학부모의 등장

1980년대생의 일반적인 특징

1980년대생(밀레니얼 세대)의 위치

-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함.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류재성, 2019: 218).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 1900 ~ 1924년 출생), 침묵 세대(Silent Generation, 1925 ~ 1945년 출생), 베이비 부머 세대(Baby Boomer Generation, 1946 ~ 1964년 출생), X세대(Generation X, 1965 ~ 1981년 출생),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1982 ~ 1990년대 중반 출생), Z세대(Generation Z,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임.
- 밀레니얼 세대는 Y세대라고도 하며, 2020년 현재 30~40세에 해당함.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식 교육을 받은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자 세계주의자들(Cosmopolitans)임.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며, 정책 선호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매우 진보적임(류재성, 2019: 220).
-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바링허우’(八零後)라고 함. 근현대를 대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으며, 개성이 강하여 그에 맞는 소비를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특징임.²⁾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주링허우’(九零後)라고 하며, 2기 소황제 세대라고도 함.
-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X세대의 끝자락 연령과 밀레니얼 세대의 초중반 연령에 걸쳐 있음.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판단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세대로 간주해야 함. 선행연구와 각종 자료에서 보

2)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d78>

고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개인과 조직의 '거래적 계약' 관계

- 함인희(2019)에 의하면,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거래적 계약' 관계로 보는 특징이 있음. 기성세대는 직장에서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보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계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디지털 문화와 멀티태스킹

-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문화임. X세대는 청소년기에 디지털 문화를 접했으며, 기존 아날로그 문화 위에 디지털 문화를 수용함. 밀레니얼 세대는 어릴 때부터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을 직접 사용하며 성장함. 그 때문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함. 이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 즉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패드 등과 함께 있음.
- X세대는 TV를 많이 보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항상 온라인상에 있음.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모바일과 함께 성장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웹이나 모바일과 연결되어 있음. 이들은 TV, 핸드폰,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 매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종종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함. 멀티태스킹은 그들의 두드러진 특성임. 그러나 그들은 모든 미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 미디어를 옮겨 다니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

타인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함

- 밀레니얼 세대는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함. SNS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수단임. 그들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 자신의 선호와 평가 등을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함. 마케팅 측면에서 그들은 전례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는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서 매우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함. 이들은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문가들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나 조직참여와 협력의 욕구도 높음

-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욕구가 강함. 밀레니얼 세대를 셀피(Selfie) 세대라고 지칭함. 셀피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관련되어 있음. 셀피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짐. 이들은 여행, 음악, 음식,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체험을 하며 성장했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주제에 관심이 많음.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을 조직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주의에 가치를 더 두는 집단임.
- 함인희(2019)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일(Work)과 삶(Life)의 균형을 추구함(워라벨 세대). 일과 삶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보다 삶을 선택하는 욕구가 강함. 삶을 선택하는 경향은 기성세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는 상호 협력하는 것에 매우 개방적임. 그들은 조직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하고, 참여 욕구도 강하며, 그들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함. 그들은 조직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음. 그들은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다양한 취향과 행동을 보임.

1980년대생의 성장기와 현재

‘밀레니엄 맘’이 열어갈 신학부모 시대

-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로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을 맞아 대거 대학에 들어감. X세대의 다음 세대란 이유에서 Y세대로 불리기도 함. 타임지에서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 ‘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이라고 표현했음. 대학 진학률이 높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면을 보임.³⁾
- 한국 사회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밀레니얼 세대는 2011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부모로서, 기존의 학부모 층에 대거 합류하고 있음.
-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 부모가 된 여성들을 ‘밀레니얼 맘’이라 부름.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8년 여성 평균 초산 연령이 31세임을 감안하면, 현재 밀레니얼 맘의 대부분은 1980년대생임. 따라서 학부모로 새롭게 등장한 1980년대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밀레니얼 맘들은 대체로 고학력임. 이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음. 이들이 대학생이거나 막 취업하여 활동하던 2000년대에는 ‘알파 걸’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엘리트 여성이라는 의미임. 알파 걸이 결혼해 ‘슈퍼 맘’이 되었고, 예전과 다른 새 부모 유형이 등장하게 됨.

‘아나털 세대’의 놀이: 전통놀이에서 PC게임으로 진화

- 1980년대생은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아나털 (Anatal = Analogue + Digital) 세대⁴⁾임.
- 1980년대생들의 초등학교 때 했던 놀이는 땅따먹기, 롤러스케이트, 고무줄놀이, 문방구 오락기 등임. 이들의 유년시절은 1990년대생들과 달리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상당히 띠. 당시는 자동차가 급증하였고, 도시의 부모들은 교통사고 염려 때문에 집안이나 동네 안에서 놀게 함. TV에

3) 한국경제, 밀레니얼 세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4) 제주매일,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385>

서도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각종 비디오와 게임기가 개발되어 놀이형태가 변하게 됨.⁵⁾

- 1990년대 중반에 PC방이 퍼지기 시작했음. PC방은 Windows 95가 출시할 무렵에 대학가 주변에서 외국의 인터넷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로 출발했음. 1998년에는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가 등장했고, 1999년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e-Sports를 대중화시킨 스타리그가 보급되었음. 이즈음 국민 PC와 전용망의 보급으로 인해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 이로 인해 1980년대생은 당구와 술을 즐기던 이전 대학생들과는 다른 놀이문화를 형성하게 됨.

아이돌 팬덤(fandom) 문화를 만들어낸 첫 10대

- 솔로 가수가 인기를 끌었던 이전과 달리, 1980년대생이 10대 팬이었던 1990년대에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팬클럽 카페나 팬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돌 팬덤 문화를 만들어감. 국내에서 팬덤은 1980년대에 가수 조용필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던 ‘오빠부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팬덤은 더 넓고 깊게 소녀들의 일상으로 들어옴. 이후 H.O.T, 젝스키스 등으로 이어짐.
-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초기 팬덤은 스타를 향한 일방적인 구애의 양상을 띠었고, 스타에 대한 실망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음.⁶⁾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민폐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이해찬 세대’: 과도한 공부에서 탈출, 야간자율학습 폐지

- 과거 학력고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가 도입되었음. 대학 별로 1981년도부터 실시되어 왔던 내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입전형에 도입함. 또한 심층면접과 같은 다양한 전형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김광억 외, 2004).

5)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4>

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26/61999008/5>. 극성팬들을 비난하는 말로 ‘빠순이’가 유행함.

- 이해찬 교육부장관(1998~1999년 재임)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예고했을 때, 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을 ‘이해찬 세대’라 부름.⁷⁾ 이해찬 장관은 당시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특기 하나만 있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입 전형이 바뀐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시행되던 야간자율학습,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함. 교육부는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비롯한 각 학교별 입시 준비 대책에 대해 지침을 내렸음.
- 이와 함께 학생 인권을 위해 체벌에 대한 가이드를 정함. 학생 체벌에는 일정 크기 이하의 몽둥이만을 이용하고, 과도한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이해찬 1세대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보다 약화된 체벌을 경험하며 학교생활을 했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여 오후 4~5시 경에 하교했음.
- 당시 교육 개혁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는 공부를 과거만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그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게 되었음. 이와 함께 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논란도 계속 제기되었음.⁸⁾

일부 극성 엄마들에게 붙은 별명, ‘맘충’

- ‘맘충’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이름이나 거주지 뒤에 엄마를 뜻하는 ‘맘’(Mom)을 붙이며 SNS 활동을 한 데서 비롯됨. 이들은 대체로 30대 ~ 40대 연령층임.
- ‘맘충’은 엄마들이 아이를 빌미로 민폐를 끼치거나, 부모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빗대어 표현한 말임. 미국의 유명 사이트 레딧(reddit)만 해도 EntitledParents(이기적인 부모들), InsaneParents(미친 부모들) TwoXChromosomes(X염색체 2개)등 맘충과 비슷한 사례가 올라오는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음.
- 맘충 관련 문제는 여러 나라에 공통된 것으로 보임. 다만 영어권의 표현들과 일본의 ‘몬스터

7) 이해찬 장관이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도록 대입제도를 바꾸려고 했기에, 200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02학번)을 이해찬 1세대, 그 다음해에 졸업한 학생들(03학번)을 이해찬 2세대라 부름.

8) 리그베다위키

<http://rigvedawiki.net/w/%EC%9D%B4%ED%95%B4%EC%B0%AC%20%EC%84%B8%EB%8C%80>

패런츠' 등은 성을 국한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여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한정되어 쓰이고 있음. 이것은 아직도 자녀교육은 엄마의 몫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일 것임.

[1980년대생을 지칭하는 용어들]

- 1) **밀레니엄 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 부모가 된 여성들
<https://woman.donga.com/3/all/12/1989654/1>
- 2) **도란스 제네레이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다양한 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세대
<https://brunch.co.kr/@jmean9/148>
- 3) **포스트 386세대**: 30대, 80년대생, 60세가 된 부모를 둔 세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6132204005#csidx8d807bd8689ff5191e7f5f217ce8309
- 4) **380세대**: 30대, 80년대생, 2000년대 학번
<http://whytimes.kr/m/view.php?idx=705>
- 5) **830세대**: 80년대생, 30대, 2000년대 학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01034001&code=910100
- 6) **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세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IV.

1980년대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성

학부모 면담

- 1980년대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면담을 실시함. 용인지역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서 1980년대생 학부모들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부록 1 참조)를 활용하여 면담을 실시함. 면담 참여자는 도시지역인 용인 수지구에 있는 A초등학교(33학급) 1개교 학부모 3명, 농촌지역인 용인 처인구에 있는 B초등학교(12학급) 학부모 4명임. 면담은 조용한 회의실에서(A학교 회의실, B학교 인근 회의실)에서, 각각 2시간 정도씩 진행함. 면담자 정보는 <표 2>와 같음.

<표 2> 학부모 면담 참여자

학교	성명	성별	출생연도	자녀 학년	면담일	비고
A 초등학교	이○○	남	82년생	1학년	2020.06.09.	학교운영위원
	김○○	여	80년생	1,4학년		
	허○○	여	80년생	1학년		
B 초등학교	배○○	여	80년생	4학년	2020.06.10.	녹색어머니
	김○○	여	80년생	1,3학년		녹색어머니, 도서도우미
	양○○	여	80년생	1,3,5학년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
	이○○	여	80년생	3,6학년		학부모회회장

1980년대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인식

기대하는 학교의 주요 역할 1: 인성지도와 공동체 생활

-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인성지도’와 ‘공동체 생활’을 꼽음. 이런 생각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이두휴(2007)는 한국의 학부모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학력주의를 지목하고, 자녀교육 지원 활동은 학력주의에 순응하는 방법이라고 봄.
-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 그중에서도 1980년대생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녀의 인성과 공동체 생활을 더 중시함. 이것은 성적을 가장 중시하는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보다는 인성지도... 아닐까요?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지. 이런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김○○, A초교)
 - 저도 이제 학교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는 확실히 학업 위주로 가야 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6년 동안 배우는 거는 사실 중학생이 돼서 반년이면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처음 애들이랑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애기 엄마는 또 그렇지 않으니깐. 애기엄마가 어렸을 때 뒤쳐지면 이제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하지만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바라는 거는 교과지도보다는 인성이나 이런 공동체생활에 대한 거를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이○○, A초교)
 -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위주였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내 공부 뭐 내 계획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번 칭찬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날 너무 기쁘고, 친구들이랑 뭐 싸웠을 때는 너무도 슬프고 막 이런 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최대한 좀 ... 그 초등학교를 좀 즐겁고 또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배○○, B초교)
 - 초등학교는 좀 즐겁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네. 솔직히 ... 애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웃음) (이○○, B초교)

기대하는 학교의 주요 역할 2: 창의력, 잠재력, 재능 발견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의 다른 중요한 역할로 자녀의 창의성을 기르고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는 것을 들고 있음.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 지도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창의력 신장, 잠재력과 재능 발견 등은 가정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 주기 바람.
 - 지금은 엄마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 그냥 기초적인 학습은 집에서 모두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 엄마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 역할을. (김○○, B초교)
 - 창의력이 대세지. (양○○, B초교)
 -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도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부모가 그거는 잘 못하니까. (김○○, B초교)
 -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애들이 뭐 음악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엄마가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 B초교)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 교우관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걱정함.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언어폭력에 시달리거나,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집단따돌림 같은 걸 겪게 되는 상황을 걱정함.
 - 저기 엄마가 이제 뭐 학폭할 거래. 그런데 다 이제 문제점이 보이니까, 저희들처럼 생각이 똑같지는 않은데,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애들이 당했을 때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걱정이라

고. 왜냐하면 애는 그런 행동을, 의도를 한 거는 아닌데 상대방 쪽에서 약간 이제 오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학폭에 바로 가려고 하시니까 ... 그런 게 걱정이예요. 왜냐하면 ... 저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도, 바로 저기 학폭 그냥 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아직 시골인데도 ... 그런 게 좀 있죠. 그런데 결국,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오해인데. (양○○, B초교)

- 사실 저는 다른 거는 걱정 하나도 안하거든요. 애가 공부를 못하든 집중을 못하든, 친구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하는데, 왕따를 당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 왕따가 좀 지속되면 애 자체가 좀 쪼그라들기 때문에. 사실 그거 때문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이번에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데 1년 동안만 애가 잘 그 ... 사회관계를 좀 ... 형성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한 것도 있고요.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예요. (이○○, A초교)

- 아이들이 무심코 그냥, 그러니까 때리면 그냥, 그때 아! 이라고 마는데, 그 말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의 경우, 그래서 막 욕을 막~ 막 욕을 엄청 막 찰지게 하셨나봐.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 그래서 어떻게 했니? 라고 했더니, 너는 그렇게 참 나쁜 말만 쏟아내는구나 라고 했더니, 또 막~ 욕으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 됐어, 이라고 말았는데. 그게 계속 음~ 머릿속에 남는다고. 나는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보실 수 있을 ...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다른 데서 하잖아요. (김○○, B초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심은 높으나 참여는 낮음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음. 그러나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는 방관자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실제로 잘 참여하지 않음.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늘 인원이 부족한 상황임. 그래서 학교에 참여하는 소수의 학부모가 여러 분야에 걸쳐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남.

- 녹색어머니회 봉사할 때도 카페에, 이제 그런 데 이용해서 알바를 구해요. 자기 대신 설 사람.

- 그런 식이에요. (이○○, A초교).
- 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옆에 누가 해줄 거야. 이게 너무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를?
다 아니까? (배○○, B초교)
 -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관심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되겠지? (김○○, B초교)
 - 그냥 웬만해서 다들 방관자? (웃음) (양○○, B초교)
 - 참 되게 희한한 학부모님들, (웃음) 정말 ... 관심은 있는데 참여도는 낮아. 이게 되게, 되게 ... 헛갈려요. (이○○, B초교)
 - 내가 녹색회장이야. 그러면 내가 반대표도 해. (웃음) 내가 학년대표도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낮으니까, 한 명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슨 일로 모이세요. 하면 뭐 녹색회장 어머니 모이시고, 반대표 어머니 모이시고, 뭐 학년대표 어머니 모이시고, 무슨 어머니 모이시면 10명이 될 거 혼자 다 하고 있어. (이○○, B초교)
 - 부서는 많은데 모이면 조금이야. (웃음) (이○○, B초교)

학교 출석: ‘빠질 수도 있지’

- 1980년대생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적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만, 사교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학교에 보낼 수도 있음.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학교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됨.
 - 저는 일단 학교를 되게 많이 믿는 편이라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오라고 했던 거는, 학교도 최대한 방역을 다 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보내는 편이고요. 꼭 보내고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 주변에 저보다 어린 엄마들 보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되게 체험학습 잘 보내고, 해외여행도 잘 가고. (허○○, A초교)

- 응응, 맞아. (김○○, A초교)
- 저는 처음에 학교 보내면서 그게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 식의 문화가 되게 학교를, 그러니까 꼭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상황이 되면 빠질 수도 있는 곳. 이런 의미로 약간 ... (김○○, A초교)
- 일단 저는 사실 ...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평소에는,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무조건 가야 돼서 아파도 갔는데. 그러니까 다녀보니 ... 굳이 그렇게 ... 무리하면서까지. ... 무슨 다른 일이 생겼는데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A초교)

1980년대생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 증대, 자녀교육은 여전히 어머니 몫

- 예전에는 자녀교육을 거의 어머니가 담당하였음.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의 이야기였음. 이제 1980년대생 학부모들 중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버지들은 여전히 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에 대한 인식도 최근 학교교육의 변화된 모습보다는 예전의 학교(주로 자신의 학창시절)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교육은 여전히 어머니가 상당히 담당하고 있음.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 성취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취함.
 - 젊은 아빠들 중에 대부분 다 이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관심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랄 때도 많았거든요. 간혹 있으세요. 점점 많아져요. 비율이. (허○○, A초교)
 - 남편이 하고 있어요. 자녀교육을. 지금 육아휴직을 남편이 하고 있어요. 위두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위두랑을 잘 몰라요. (양○○, B초교)
 - 학교를 몰라서 그럴까요? 학교에 자주 안 오시잖아요.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은 가서 수업하는

- 것도 보고 달라진 학교를 보는데. (배○○, B초교)
- (남편들은) 아직도 옛날인 거예요. (이○○, B초교)
 - 시대가 바뀌어서 교육도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김○○, B초교)
 - 그냥 자녀 교육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건가? (배○○, B초교)
 - 저희도 제가 알아서 해요. (김○○, B초교)
 -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알아서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푸시가 들어오기는 하죠. (이○○, B초교)
 - 아빠들은 아웃풋에만 관심이 있구나. (배○○, B초교)
 - 그렇죠! (웃음) 그래서 아빠는 딱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딱 카톡에 보내면, 어! 그래. (김○○, B초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할: 이상은 멘토, 현실은 매니저 또는 플래너

-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친근한 멘토가 되고 싶어 함.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잘 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 함.
- 그러나 실제로는 매니저 또는 플래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자녀의 학습을 미리 설계하고 진행과정을 모니터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을 수정하는 일을 계속함.
 -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 그냥 부모의 바른 생활습관, 부모의 가치관, 큰 꿈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큰 꿈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예요. 멘토 역할을 하고 싶은데 ... (김○○, B초교)
 - 어떻게 키우든 잘만 키우면 되니까 네. (웃음) 그런데 저는, 저도 일단은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애랑 친구나 멘토가 되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그게 잘 안되니까 (이○○, A초교)

- 저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저는 매니저라고 답을 했거든요. (웃음) (이○○, B초교)
- 저희가 얘기했어요. 로드매니저라고. (웃음) (김○○, B초교)
- 시간표대로. (웃음) (김○○, B초교)
- 픽업, 픽업. (웃음) (양○○, B초교)
- 큰 애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던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 앞에 가면 이모 저 타도 돼요? (웃음) 타라. (웃음) 그래서 애가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애들을 항상 픽업을 다, 픽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딱 쓰여, 나는 매니저네? (웃음) (이○○, B초교)

자녀의 공부 계획안에 들어온 사교육

-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어머니들은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갈까 봐 불안해 함.
-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기준으로 삼고 사교육을 병행하면서 자녀의 공부계획을 짤. 심지어 초등 저학년 때부터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위한 ‘12년 계획’(초등 6년, 중등 6년)을 갖기도 함. 이 ‘12년 계획’은 학부모 사이에 공공연히 퍼져있는 속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사교육은 ... 왜냐하면 제 생각이지만, 와이프랑 맨날 부닥치는 게 그거예요. 와이프는 무조건 사교육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애 의지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가르쳐도 애가 의지가 없으면, 어차피 집중을 안 하면 얻는 게 없다. 하지만 애가 학교만 다녀도, 애가 얻고자 하고 집중만 하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저인데. 와이프는 의지도 없는데 시켜야지 중간은 간다. 네,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나중에 이제 지가 하고 싶을 때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안 시키면 뒤쳐져 있으면 따라오지도 못한다. 네, 그래서 첫째, 둘째 나눠서 해요. (이○○, A초교)
 -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 좀 걱정돼요. 애가 먼저 지칠 것 같아서. 엄마가, 엄마가 먼저 지치든 애가 먼저 지치든, 둘 중의 하나는 지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예요. (이○○, A초교).

- 그런데 그 12년 플랜을 어디서 찾았어요? (연구자)
- 엄마 재산이라 유일하게. (웃음) (이○○, A초교)
- 그러면 제일 확실한 대치동 학부모들의 플랜을 많이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구자)
-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디 거를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A초교)
- 그게 출발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초등은 저학년 때 예체능을 해라. (허○○, A초교)
- 올라갈수록 뭐 5, 6학년에 수학에 매진해라. 이런 식. 영어는 밑에서부터 미리 깔아야 된다. 중학교까지 아니 중학교 가기 전인가? 중학교까지 영어는 떼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으로만 간다. 이런 큰 흐름. (허○○, A초교)
- 6학년 때 정석을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6학년 때)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A초교)

1980년대생 학부모의 소통 방식

교사와의 소통: 부담스럽지 않은 통화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예전 학부모들과 달리 교사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음. 자녀와 관련하여 사안이 있을 때, 학부모는 교사와 전화 연락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음.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심리적 저항 등 의사소통의 문턱이 예전 학부모들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
 - 아,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와이프 보니까 전화하거든요. 찾아서 담임선생님이나, 어 그런데 이제 저희 때와는 다른 게, 저희는 선생님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와이프는 편하게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 A초교)
 - 이제는 뭐 ... 초등학교 선생님도 편하게. 잘 전화하더라고요. 포럼회 이런 걸로도 잘 통화하고. (이○○, A초교)

- 주변 분들은 교사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지요? (연구자)
- 어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허○○, A초교)
- 어쨌든 젊은 엄마들은 이렇게 막 옛날처럼 학교를 무서워해서 연락을 안 하거나, (웃음) 뭐 두려워서, 내 아이에게 뭔가 올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는,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허○○, A초교)

선호하는 소통 방식: 카톡, 문자, 어플

- 면담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카톡과 문자, 어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학교에서도 대개 어플을 통해 가정통신문과 주간학습안내 등을 학부모들에게 보냄.
 - 아까 여기, 여러 세대 같이 있는 특은 별로 없고요. 저희, 저희 1학년 때 반톡에 모든 학부모가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섞여 있었어요. 그때 보면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은 특 자체를 잘 안하세요. (웃음) 이 특 자체가 일단 이렇게 젊은 쪽, 그리고 되게 빨리 치고받으니까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또 빨리 못 따라가시니까. (웃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읽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허○○, A초교)
 - 어플은 하고 제가 바로 프린트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더라고 오히려. (김○○, B초교) (이○○, B초교)
 - 학교종 앱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뭐 담임선생님들, 가정통신문 이런 걸로 다 받아보니까. (양○○, B초교)

학부모들 간의 소통 방식: 맘카페나 반모임보다 개인적인 소통

- 학부모들 사이의 소통 창구는 맘카페가 주를 이룸.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맘카페와 반모임 등 공동체 성격의 모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저학년 학부모들은 맘카페와 반모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고학년 어머니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을 더 선호함.

- 젊은 학부모들은 스스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함. 반모임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도 금액을 각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함.

- 네. 맘 카페도 가고. 그 ...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랑도. 이게 1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고학년들도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들 얘기를 해주죠. 뭐 가면 뭐를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준비물 뭐 챙겨야 되고. (김○○, A초교)
- 아까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부모들 사이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만나서? 전화? (연구자)
- 저는, (웃음) 좀 고학년 있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A초교)
-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잘 전해줘요. (허○○, A초교)
- 진짜 거의 대부분 친한 사람, 친하신 분들끼리 소통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반모임 이런 자체를 안 하니까. (이○○, B초교)
-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저학년 아이를 보면 이게 ... 그런 활동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줄었대요. (김○○, B초교)
- 줄었어요? 왜요? (연구자)
- 네. 줄었대요. 모르겠어요. 줄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반모임을 하면 뭐 차를 마신다 하면, 다 저기를 해서 이거를 금액을 N분의 1로 했는데, 요즘은 어~ 뭐죠? 딱 자기 건 자기가 결제하고 자리에 앉는대요. 어 되게 처음에 되게 좀 ...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고. (웃음) (김○○, B초교)
- 요즘은 자기가 먹은 것만 자기가 하고 딱. 시켜서 앉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웃음) 첫째 때랑 너무 다르다고. (김○○, B초교)

-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음.

<표 3> 1980년대생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성 요약

구분	주요 내용
학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주된 역할은 인성 지도와 공동체 생활 지도 · 학교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기르고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곳 ·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걱정되는 것은 교우관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 학부모는 학교에 관심은 많으나 참여는 저조함 · 학교 출석은 경우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음.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몫임 ·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멘토 역할을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매니저 또는 플래너 역할을 하고 있음 · 자녀교육 계획 속에 사교육을 포함시킴
소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부담감 없이 통화함 · 학교(교사)와의 소통은 주로 카톡,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 · 학부모들 간의 소통은 맘카페나 반모임도 활용하지만 개인적인 소통(대면, 카톡, 전화 등)을 더 선호함

V.

시사점 및 제언

- 1980년대생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지만, 조만간 고학년 학부모가 되고, 이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부모가 됨. 이전 세대가 만들어놓은 학교문화는 이들에 의해 도전을 받기 시작함.
- 1980년대생 학부모의 인식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시사점

방향 1: ‘호명된’ 학부모에서 ‘주인된’ 학부모로

-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임. 지금까지 학부모는 학교의 지원자, 보조자, 봉사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음.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12년 계획을 구상할 정도로 자녀교육과 학교교육에 관심이 높으나, 실제로 학교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비율은 낮음. 이렇게 참여 비율이 낮은 까닭은 학교가 학부모를 참여시키거나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교원들은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외적인 일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처럼 ‘불려나오는’(호명된) 학부모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지 이들을 호명한 주체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뿐임. 실제로 학교에서 주문하는 일만 하는 학부모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만,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는 학부

모들이 재미있게 참여함.

-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정하고, 학부모가 자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교 참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방향 2: ‘소문난’ 교육정보에서 ‘검증된’ 교육정보로

- 보통 학부모들이 현행 학교교육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자녀교육의 세세한 것들을 결정할 때,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음. 학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학부모들 사이에 퍼져있는 소문을 들어서 자녀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들의 관심을 끄는 소문은 대개 학교 공부를 위한 선행교육과 입시 준비 같은 것들이며, 사교육 분야에 이런 현상이 널리 퍼져있음. 즉 입시에 유리한 정보, 선행교육, 공부의 비법, 교재와 문제집 등과 관련한 소문들이 마치 요긴한 교육정보인 양 포장되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음.
- 이것은 사교육기관이나 관련 업체들의 영업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유용한 진로·진학정보와 검증된 교육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이제는 학교알리미⁹⁾ 수준의 정보공시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관 정립과 자녀교육지원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교육정보를 상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또한 학부모들 사이에 퍼져있는 교육에 대한 속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해야 함.

방향 3: ‘한방향’ 소통에서 ‘쌍방향 & 다방향’ 소통으로

- ICT의 발달로 인해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지능정보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원하는 이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지향함.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전제하에, 학교가 생산, 보유, 유통하는 정보는 학부모와 교육행정기관 등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함.

9) 2008년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학교알리미’에 공시함. 학교가 공시하는 정보는 학생, 교원현황, 시설, 학교폭력발생현황, 위생, 교육여건,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등과 같은 것들임.

- 학교는 어플을 통해 가정통신문, 주간학습안내 등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종 정보를 게시함. 이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체로 한방향의 소통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음.
- 학교는(교원은) 학부모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확인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교원과 학부모들이 다방향으로 소통할 필요도 있음. 쌍방향 및 다방향 소통은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정보망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소통기제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평소에 교원과 소통하거나 학교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 소통과 참여를 돕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방향 4: ‘한쪽’ 교육관에서 ‘양쪽’ 교육관으로

- 학부모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관이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음. 교육관이 다르면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방식, 학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 사교육에 대한 인식 등에도 차이가 나타남.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인성과 공동체 생활, 창의력과 잠재력, 재능 개발 등에 동의하지만, 대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학업성적과 입시준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관의 차이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가정에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동행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제언

학부모 관련 연구 및 담론의 풍부화

- 학부모 관련 연구는 체계적이지 않고 파편적이며 일시적임. 연구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담론, 학부모가 참여한 담론도 풍부하지 않음. 연구와 담론이 빈약하다는 사실은 학부모라는 존재가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사실 학부모는 사회의 다른 맥락에서는 소비자, 정치인으로 기업가로 전문가로 일반 직장인으로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
- 학부모 관련 연구와 담론을 풍부화 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공교육에서 학부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특히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학부모의 권한과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
- 아직은 부족하지만, 학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과 담론의 특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런 작업은 학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학부모의 세대별 특성 파악

- 학부모 세대의 연령대가 30~60대로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집단 안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연령 차이가 있음.
- 본 연구의 면담 중에 학부모들 간의 세대 차이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었음. 같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도 세대 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그만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임.
- 학부모 세대를 여러 급간으로 나누어, 각 세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와 교육지원활동의 양상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런 연구는 각 학부모 세대에 부합하는 학부모

교육정책의 토대가 될 것임.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과 연계

- 19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 공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해서도 허용적임. 이들은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기존 학부모들 인식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함. 즉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활용함. 학교 학습과 학교 밖 학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서 언제나 학교 학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님.
-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이 유의미한 학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학교는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자원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폭을 넓히고 새로움을 더해갈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유의미한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정책 수립

- 학부모를 학교의 지원자이자 봉사자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런 인식 하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면, 학부모의 학교 종속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사실 그것 때문에 학교 참여를 기피하는 학부모들도 있음.
- 학부모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교육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학부모 정책의 전반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버지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 1980년대생 학부모들 중에는 아버지가 육아와 자녀교육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짐. 기존의 학부모 정책들이 어머니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함. 이 경우 교원들은 학부모를 학생과 같은 ‘교육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연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가 성인세대이며 교육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 연수’로 바뀌어야 함. 교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을 ‘연수’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학부모의 자율 연수 또는 학교를 활용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함.

‘학부모 주도형’ 학교 참여 확대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추동하는 교육계의 흐름에서, ‘학교 주도형’ 학부모 학교 참여가 아닌 ‘학부모 주도형’ 학부모 학교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학교 주도형에서는 학부모가 ‘대상자’가 되므로 적극적인 역할이 없음. 반면에 학부모 주도형에서는 학부모가 ‘주도자’가 되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
- 학부모 주도형 학교 참여를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학부모 주도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2020).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 1차(2020. 2. 21.), 2차(2020. 3.), 3차(2020. 5. 7.).
- 김광역·김대일·서이종·이창용(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한국사회과학연구총서 1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봉제·김기수·박새롬(2019). 학부모회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학부모회 관련 인식 및 활성화 수준 비교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류재성(2019).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 75. pp. 217-222.
- 이두휴·남경희·손준종·오경희(2007). 학부모 문화 연구: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임홍택(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
- 함인희(2019).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3-11.
- 다음백과-바링허우세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d78>
- 리그베다위키_이해찬 세대
<http://rigvedawiki.net/w/%EC%9D%B4%ED%95%B4%EC%B0%AC%20%EC%84%B8%EB%8C%80>
- 밀레니얼 세대 3명, 지난달 통장 열어보니_고재연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 밀레니얼 세대 들여다보기_이동찬 기자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19092600173040592>
- 밀레니엄 세대, 특징 다섯 가지. 나무커뮤니케이션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mukorea82&logNo=220426911032>
- 밀레니엄 세대?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인가? 블로그
<https://bitcons.blog.me/220496519762>
- 밀레니엄맘의 알파 세대 육아법 80년대생 학부모가 온다
<https://woman.donga.com/3/all/12/1989654/1>
- 브런치 매거진(2020.6.9.) 도란스제너레이션_왜 80년대생 인가
<https://brunch.co.kr/@jmean9/148>
- 서울신문(2019.07.21.). 착한 꼰대, 위아래 눈치밥...서러운 80년대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2004002#csidxd04187eb88ec6929a66e6542e65593f>

스포츠동아(2014.3.26)[H.O.T부터 엑소까지] ★만 쫓던 ‘빠순이’서 ★ 키우는 힘으로…팬덤 ‘상생의 진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26/61999008/5>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나털 세대’

<http://www.jejuma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385>

여성동아(2020.2.27.)

전북일보 (2000.7.18.) 어린이 놀이의 변화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4>

제주매일(2018.7.11.)

한국경제(2018.10.15.)

한국경제매거진(2019년 10월호)

80년대생 중간관리자가 바라본 직장 내 세대론. 코모레비.

<https://brunch.co.kr/@oder/188>

부록 면담지

가. 학교의 중요성

- 1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일상생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일상생활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심사 전체를 100이라 할 때, 학교에 대한 관심을 숫자로 나타내면?)
- 2 자녀의 인생에서 학교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고로 중요한 경우를 100이라고 할 때, 학교가 중요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면 얼마나 될까요?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학교의 역할과 기대

- 3 학교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지도, 인성지도, 돌봄, 학업성취도의 향상, 공동체성 등)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 현재 학교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100점 만점에 몇점)
 -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학교의 문제

- 5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6 학교의 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과 양상

- 7 학교교육활동(참여방법, 참여영역)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조직적참여, 개인적참여, 자원봉사형 참여 등
- 8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수집하나요?
- 9 교사와 주로 어떻게 소통하나요?
- 10 학부모 사이의 소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11 학부모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플래너, 매니저, 멘토 등

마. 사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 12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외유형과 과외관
- 13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 입시제도 등

바. 자녀의 미래

- 14 자녀가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하나요?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 **발행일** 2020년 7월 28일 인쇄
2020년 7월 29일 발행
- **발행인** 이 수 광
- **발행기관** (재) 경기도교육연구원
(440-84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누리집: <http://www.gie.re.kr>
전 화: (031) 8012-0900
전 송: (031) 8012-0980
- **등록일** 2014년 04월 28일
- **등록번호** 제374-2014-000034호
- **I S B N** 979-11-89831-84-4 (93370)
- **인쇄** Design세창 (T.1544-1466)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